

새생활운동의 조건

여동찬/한국외국어대 교수

「새질서, 새생활운동」 「과소비추방운동」 「수입품 안사기 운동」 등등은 우리가 매일 눈과 귀가 아프도록 신문에서 읽고 방송매체들을 통하여 듣는 말들이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보아도 새질서를 발견하기 어렵고 새생활을 느끼기 어렵다. 사회의 일부 부유층에서는 계속 소비를 이상적인 미덕으로 삼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것만 같다.

확실히 과소비풍조는 오늘의 한국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며 자칫하면 호조를 보였던 경제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병폐라고 하겠다.

한국사정에 약간이라도 밝은 외국인이면 오늘 한국국민의 소비생활에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고 또한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면 이나라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한국사람은 없을 정도이다.

사회의 각분야에서 문제의 과소비풍조와 사치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기껏해서 일본에 비해 1/4, 서구선진국들에 비해 1/3에 불과한 일인당국민소득을

기록하는 한국국민들의 소비수준은 서양사람들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소위 「자동차문화」만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장, 발전에 따라 자동차가 필요해서 그 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일인당국민소득이 6,000달러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민답지 않게 한국사람은 대형차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것이다.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과소비풍조를 부추킨다고 정부당국자들을 탓하고 과소비억제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서 인기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선량들이 입법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시간에 국회의



사당으로 가는 길은 고급자동차전시장으로 변해 장관을 이루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과연 대한민국으로서 자랑거리가 될까 의심스럽다.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나는 몇 년 전에 파리에서 탔던 불란서 국회의장의 1,600cc짜리 자동차를 연상하게 된다.

「주택문화」도 마찬가지이다. 방배동, 양재동 등 고급인사들의 공급인생이 과시되는 수많은 고급주택가는 역시 놀라운 것이다. 불행하게도 직접 들어가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 외부보다는 대리석 등 수많은 수입품으로 꾸민 내부가 훨씬 더 화려하다니까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얼마전에 만난 외국인 한 사람은 일부 한국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10여년 전에 궁전과 전용비행기의 화장실까지 황금으로 장식했던 「팔레비」국왕의 몰락 직전 이란의 왕실과 상류사회의 사치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라고 했다.

몇년 동안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부유층이 흥청망청하고 낭비를 해버리면 한국경제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앞으로 한국이 남미의 꼴이 될지, 일본이나 서독처럼 알차게 발전할지는 알길이 없지만 선택은 오늘의 한국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남미의 사람들처럼 돈이 생기는대로 쓰고 부유층들이 제멋대로 쓰게 되면 남미의 꼴을 면하지 못하겠지만 지독하리

“
앞으로 한국이 남미의 꼴이
될지, 일본이나 서독처럼
알차게 발전할지는 알길이
없지만 선택은 오늘의
한국인들의 과소비나
근검절약이나 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

만큼 알뜰한 독일사람들이나 일본사람들처럼 여유가 있을 때도 근검절약할 줄 알면 역시 서독이나 일본처럼 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 「과소비추방운동」 등은 없어서 안될 운동이긴 하나 나는 지금 진행되는 「과소비추방운동」의 성과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 운동의 완전한 성공을 바라다면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를 추진해야 하고 또한 한국인들의 과소비풍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부터 해야 하겠다.

민족의 정신적 개조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은 「과소비추방운동」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과소비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과소비할래도 할 능력도 없는 서민들을 보고 절약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똥물은 강아지는 한번 씻어보고 겨물은 강아지를 나무라야 순서가 맞는 것은

로 알아야 하겠다.

필자가 한국국회의원들과 불란서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선되기 위해 선진국에서 쓰는 정치자금의 10여배내지 수십배의 돈을 쓰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과소비추방」에 앞장 설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선진국에서 잘 쓰지않는 고급 수입품으로 꾸민 집에서 살면서도 「과소비추방」이니 「외제수입품 안사기 운동」이니 하면 서민들의 귀에 설득력있게 들릴까? 「국위선양」을 위하여 분에 넘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물쓰듯 쓰면서도 국민들에게 근검절약을 호소, 분수를 지키는 자세를 요구하면 별효과를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끔 「과소비추방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가두 「캠페인」은 또한 얼마나 효과적일까? 과소비와 사치의 화신으로 알려진 배우, 탤런트 등이 전단을 나눌 때 서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문제가 되는 과소비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대책부터 강구해야 하겠다.

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관해서는 특히 대기업들, 제조업체는 반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외제에 대해 아무리 구미가 당긴다 해도 국산품의 품질이 이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가격이 저렴한 수준이면 수입품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그만

큼 줄어 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에 국산품은 거의 언제나 선진국들의 제품에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외제를 찾기 마련이다. 그뿐아니라 같은 품질의 경우 국산품이 훨씬 더 비싼 경우도 많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도 수입품을 찾는 경우는 적지 않다고 한다.

과소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시대에 와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사회를 지탱했던 신분제도와 가치체계의 붕괴를 면할 길이 없었다.

구한말에 시작된 가치체계의 붕괴는 일제식민정착을 통하여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에도 외래문화가 도입되면서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는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되찾지 못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낼 여유도 없었다. 그러다가 무분별하게 최상의 것처럼 선전된 경제제일주의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돈과 재력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경제수준은 신분의 가장 확실한 뒷바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사회분업론」에서 「뒤르켐」이 말하는 소위 「아노미」 현상 즉 공통의 전통기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동상태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을 통한 새로운 가치체계와 도덕적 규범의 정립이라 하겠다. 卞